



성재영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남구에서 주민화합의 큰잔치가 열립니다. 올해로 열두번째인 오륙도 축제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백운포 체육공원과 평화공원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번 오륙도 축제는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주로 열리고 평화공원과 남구정 등에서 일부 행사를 부산 개최합니다. 그동안 주 행사장이었

던 평화공원 일원은 교통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변학교와 주택가의 소음민원이 있어, 부득이 명승지 오륙도가 지척에 보이는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행사 대부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오륙도 축제는 해군 건군 60주년 기념 『08 국제 관함식』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앞 바다와 백운포 체육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해군 관함식은 발전된 우리 해군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13개국 합정 20여 척과 우리해군 세종대왕함 등 30여 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 사열식이 부산 앞바다에

서 펼쳐지고 합정공개 및 승선체험행사, 군악대 공연, 바다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특색있는 행사 만끽하길

오륙도 축제의 중요 행사 내용을 보면, 축제성공위원회에서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해군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초청가수가 참가하는 축제 개막 축하공연, 오륙도 해상 불꽃쇼,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 구민건강대회 등 17가지의 본 행사가 차례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노래를 통한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인 오륙도 가요제가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부대 행사로는 해군합정승선체험, 야생화전시, 전통놀이체험마당, 생태전시체험, 가을시화전, 평화

생학습참여마당을 비롯한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통한 다문화 이해의 장 마련 등 25가지의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남구 문화 예술회 주관으로 평화공원에서 부산시내 거주 시민, 학생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개최되며, 미술, 서예, 사진, 수석, 꽃꽂이 작품전시 등이 문화회관 대전실에서 열린고 서예작품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오륙도 민속 경연대회는 평화공원에서 풍물, 민속놀이 등 참가종목별 경연대회를 열리며 오륙도 사랑 구민 체육대회가 구민화합과 어울림 한마당 축제로 백운포 마사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

으며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시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문화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백일장과 사생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적 환경조성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확대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직접참여하는 잔치 한마당

오륙도 축제는 남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축제는 구민을 위한 구민의 축제입니다. 구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등 폭넓은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축제행사를 그저 관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축제장으로 많이 오셔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가슴으로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마음껏 즐기는 주민화합의 잔치가 되어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동참하고 나아가 우리 남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부산남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152>



선영의 1000자 지혜 53

눈 뜬 장님

눈을 뢴다고 다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은 아니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으면서, 남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언제나 잘 아는 체 큰소리치며 다니는 얼간이들이 사람의 간장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다. 자기만 보고 남을 볼 줄 모르는 장님,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있으면 껴어들어 시시비비를 따지고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한다.

제(齊) 나라에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그는 평소 성격이 아주 조금 하여 말을 할 때도 언제나 깊이 생각지도 않고 하여 실수할 때가 많았지만, 자신은 그걸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다녔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으면 그때마다 버럭 화를 내며 욕을 했다.

“당신은 눈도 없소?”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대부분 상대하지 않았다.

하루는 양(梁) 나라 출신의 맹인이 역시 거리에 구걸을 나섰

는데 그 사람 역시 성격이 사나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먼저 화부터 내며 지팡이를 휘둘러대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보면 화를 입을까봐 일찌감치 피해버리곤 했다.

그날, 양 나라 맹인과 제 나라 맹인이 시장에서 구걸을 하다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양 나라 맹인은 상대도 맹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욕부터 했다.

“너도 눈이 멀었느냐?”

그러자 제 나라 맹인도 지지 않겠다는 듯 큰소리로 욕을 했다.

“눈은 앞을 보라고 봐야 놓았지 그 남 장식으로 봐야 놓은 줄 아느냐?”

두 맹인은 서로 욕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러대자 사람들은 옆으로 피한 뒤 비웃었다. 육체의 눈은 말할 것 없고, 마음의 눈까지 먼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장님은 장님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눈 뜬 장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번역문화가 홍호1동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사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차선 버스하차 위험 천만

경성대, 부경대 쪽에서 서면방향이나 수영구 방면으로 가는 버스정류소는 항상 혼잡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노점상이나 택시의 긴 줄 때문에

버스 하차시 1차선에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 의식도 문제지만 버스운전기사 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정류소가 아닌 1차선에 승객을 내리게 한다. 오토바이라도 지나가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늘리고,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아동학대를 줄이자는 요지의 감만1동 강석훈회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정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주간: 주민복지서비스과, 야간: 당직실)를 접수 받고 있으며, 급전도부터는 남구아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상담을 통한 지도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시에는 즉시 상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고, 위기상황의 아동은 경찰 연계로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성폭력 없는 남구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팔플렛을 배부하여 홍보하고, 7월 2일 남구정 대강당에서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및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여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

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부교육청 및 보육시설 자체내에서도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영(주민복지서비스과)

내집마당 주차장 신청을

육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보자는 대원3동 오정화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고지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역 내 소규모 내대기·공공용지·주택(공가) 등을 활용하여 매년 2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건의하신 육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께서 먼저 주택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안전성 확보 후 육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주민께서는 구청(교통행정과)으로 내집마당 주차장장기

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남(대원4동)

힘 모아 깨끗한 남구를

지난 8월 어느 토요일 오후 대원동 뒷골 골목시장 앞을 지나서, 육교를 건너가려고 큰 도로까지 왔다. 그런데 그곳은 쓰레기가 상가 앞에 많이 흩어져 바람에 날리고, 버스정류소의 의자 위 아래 주위에는 종이컵, 담배꽂초, 종이조각 등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청소부 아저씨가 수고를 매일 하는 줄 아는데 주말이라 일찍 마치고 가서 그런건지 3시간쯤 지나 다시 돌아와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청소부

아업을 신청하여 주시면 현장확인 등을 통한 검토 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채원(교통행정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

허위 대출 광고를 근절해 달라는 용호1동 백은희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 허가 및 신고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맞게 허가 및 신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으며 대부분광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발견할 시에는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및 과태료부과 후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주경(도시관리과)

■ 나의 생각

칭찬의 힘 보여주자



김달현

우리는 자고 나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짜증스럽고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심코 던진 과격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칭찬의 말은 상대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주위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서로 친하고 정을 나누는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긍정적인 고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말의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천 번만 반복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좌측 뇌에는 언어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의 지배 하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의 위대함을 믿고 아름답고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그 육중한 몸으로 환상적인 쇼를 보여주는 것은 훈련과정에서 조련사가 쇼를 멋지게 했을 때 즉시 칭찬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생각과 정적감정을 같이 하고 잘해 낼 때마다 계속 격려하

는 4단계 칭찬 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어떤 동물원에서는 얼룩말 등 동물들의 건강검진 때 묶어놓거나 마취주사를 놓지 않고 칭찬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도하여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이 그럴 진대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칭찬은 내 가족, 이웃, 직장,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활력소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 거리를 찾아 서로 칭찬해 주면 그날 하루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분 좋게 되고 또 남을 칭찬하게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직장에서 칭찬의 말이 앞서면 더욱 아름답고 명랑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남편이 자동차운전을 배우려고 했을 때 ‘술에 취해 밤마다 비틀거리면서 무슨 사고를 내려고 온 상대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주위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서로 친하고 정을 나누는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긍정적인 고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말의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천 번만 반복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좌측 뇌에는 언어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의 지배 하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의 위대함을 믿고 아름답고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그 육중한 몸으로 환상적인 쇼를 보여주는 것은 훈련과정에서 조련사가 쇼를 멋지게 했을 때 즉시 칭찬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생각과 정적감정을 같이 하고 잘해 낼 때마다 계속 격려하

남구문화회 부회장

남구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정원	이용료	기간	장소
수화교실	의사소통 기술 및 이해도 향상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청각장애인 및 가족/30명	무료	3월~12월 주1회(금)	사회회의실
영화관람	문화활동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과 친목도모	장애인 및 지역주민/60명	무료	연중매주(금)	4층강당
노래교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 고취	장애인 및 지역주민/70명	무료	연중매주(수)	4층강당
이·미용서비스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청결관리 및 경제적 부담감 해소 (남·구·미용활회 봉사)	지역장애인/주 60명	무료	매월 둘째주(화)	4층강당
생활체육 밴드민턴	지역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증진 도모	등록 장애인/20명	부산시 체육회지원	3월~12월	-
성인운동치료	운동발달 및 기능저하 대상자에게 신체운동발달 기능향상 운동치료(1:1 개별치료)	성인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92명	1회당 5,000원 (40분)	연중 (1명당 주 2회)	1층 물리치료실
아동운동치료	운동발달 및 기능저하 대상자에게 신체운동발달 및 기능향상 운동치료(1:1 개별치료)	아동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384명	1회당 5,000원 (40분)	연중 (1명당 주 2회)	1층 소아치료실
집단언어치료	조음장애, 기호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등의 언어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집단치료	언어치료 장애아동대상자/5명	월/40,000	연중(화~목)	2층 언어치료실
집단심리치료	정서 및 행동발달 장애아동의 심리적인 운동해결을 위한 집단치료	심리치료 장애아동대상자/5명	월/40,000	연중(화~목)	2층 심리치료실
개별언어치료	조음장애, 기호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등의 언어능력 향상(1:1 개별치료)	언어치료대상자/12명	1회당 6,000원 (40분)	1월~12월 (월~목)	2층 치료실
개별심리치료	정서 및 행동발달 장애아동의 심리적인 운동해결(1:1 개별치료)	심리치료대상자/12명	1회당 5,000원 (50분)	연중(월~목)	2층 치료실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탐색, 직업인식, 직업준비 등에 관한 훈련	성인발달 및 지체장애인/8명	수급20,000원 비수급50,000원 (신비포함)	연중(월~금)	3층 훈련실
정보화교육	초급반, 중급반, 인터넷활용 그래픽반, 자격증취득준비반	등록 장애인/40명	무료	연중(월~금)	3층 정보화교육실
(특성화) 여성직업능력향상사업	여성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및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장애인/100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연중(목)	강당 및 소회의실
(특성화) 방과 후 교실 (미술치료)	미술, 놀이 등 다양한 치료활동을 통한 장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증진을 도모	장애아동/28명	부산시 교육청지원	연중(월~금)	2층 미술치료실

* 위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26-6990~1

■詩가 있는 풍경

만남, 이별



진영태

(전 시의원)

어느 여름 뜨거운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녀는 그렇게 태풍같이 왔다.

정말 그것은 지독한 태풍이었다.

그 남자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였다.

모든 뼈조각이 투명한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영혼은 서서히 사위어 가고 있었다.

겨울 뱃나무 아래서 이별을 해야만 할까

그 남자 너무 오래 서서 울 것 같다.